



일주문



영가천도제 입재식

현해 월정사 주지는 8일 오전 10시 49재 생전에수재 및 영가천도제 입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5월 27일.



만공스님 탄신 대례제

법장수덕사 주지는 3월 31일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스님 제130주년 탄신대례제를 봉행했다.



남양주·구리 시암련 회장

일면 봉선사 주지는 3월 23일 남양주·구리시 불교 사암련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031)527-5974



용성스님 학술세미나

보광 대각사상연구원은 12일 서울 대각사에서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의 사원경제 문제' 학술세미나를 연다.



수원불교연 방생법회

성관 용화정사 주지는 3월 29일 충주 중앙탑에서 '수원시 불교연합회 연합방생법회'를 가졌다.



美서 KBS 특집 촬영

해안 조계종 재정국장은 미국LA 태고사 건립기금마련 전시회와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촬영을 위해 2일 출국했다.



정년퇴임 출판 기념회

이영자 전 동국대 불교대학 원장은 3월 26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정년퇴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방승통신대학 입학

김홍국 불자가수는 방승통신대학 행정학부에 입학해 3일 열린 입학식에서 입학생을 대표해 선선했다.



천태종 승재 스님 입적

천태종 학교법인 금강학원 사무처장 승재 스님이 23일 입적했다. 세수 49세, 법랍 20세. 승재 스님은 83년 구인사에서 출가한 후 85년 수계도독했고, 총무원 인사국장, 영월 삼태사 주지, 서울명락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25일 구인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다.

“영문 불교문화사전 내년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권기중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이 추진해 온 영문 <불교문화사전>을 편찬하고, 중종 이후 <이조왕조실록 불교자료집>을 엮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월 15일 동국대 부설 불교문화연구원장에 취임한 권기중(불교학) 교수는 우선 연구원의 연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불교문화사전>은 현재 80% 정도 진척됐는데, 각 항목에 대한 미국인의 운문 과정도 마친 상태여서 내년까지는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또한 권 교수는 중종까지의 불교 관련 기록을 담아 발간한 <이조왕조실록 불교자료

집>(총 13권에 색인본을 포함한 6~7권의 추가 자료집을 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4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연구 인력과 재정을 늘이는 데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학내 인력에서 연구원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원의 현재 규모로는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권 교수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연구 인력과 재정을 늘이는 데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학내 인력에서 연구원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원의 현재 규모로는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권 교수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임기 동안 40여 년 간 쌓은



학문을 정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교수는 “이러한 모습이 연구원에게 학문의 태도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생활 속의 불교>를 발간한 권 교수는 <한국불교 사상사>, <고려시대 선사상연구> 등을 집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40년 무사고 운전... 지역봉사 앞장”

부산문화대상 받은 '거리의 포교사' 고영호 씨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는 고 회장은 그동안 소년 소녀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교통표지판 교각 청소, 유엔요지 범어사 태종대 청소 등 부산을 아름답고 깨끗한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다 알고 앞장 서 왔다.

“40년 무사고를 축하하는 상같이 의미가 새롭다”는 고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부장관상, 서울신문사 봉사대상, 내무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불교를 알리는데도 큰 몫을 해왔다.

고 회장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낙동강 오염 막겠다”

도보순례 나선 황국근 회장



“맑은 물을 지켜 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낙동강 도보순례가 청년불자들의 구도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31일 함지굴수련원에서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낙동강 원류따라 구도 도보순례’ 입재식을 가진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이하 대불청 부산지구) 황국근 회장은.

황 회장은 31일부터 회원 40여 명과 함께 강원도 태백 황지로 출발, 내년 부처님 오신날 전야에 을숙도에 도착하는 520km 도보 순례를 1일부터 시작했다. 매일 첫째주 일요일마다 대불청 부산지구 회원과 해당지역 청년불자들은 낙동강 도보순례를 통해 국토사랑을 다지게 된다.

황 회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당위성을 일깨우는 한편 침체된 청년불교운동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천미희 기자



원용종 창종 21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 원용종(총정 일공)은 3월 26일 서울 총무원 법당에서 창종 제21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총정 일공 스님, 법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여래종 인왕 종정, 법사종 하순성 종정, 임제종 용화 종정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정 일공 스님은 “원용종도가 앞장서 불국토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제

통도사주지 신혜는 3월 29일 설법전에서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년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전계 아사리 현산영월 스님은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온갖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욱 값진 일이므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법문했다. 수계산림 대법회는 31일까지 진행됐다.



선암사 성보박물관 23일 개관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지혜는 3월 23일 성보박물관 개관 및 주지 진신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다정 백양사 주지, 현봉 송광사 주지, 법하 통도사박물관장, 흥선 직지사박물관장, 월인 법륜사 주지와 민주당 김경재 국회의원, 전남도 조보훈 부지사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했다.



서울 조계사 도서관 개관

조계사주지 지홍은 포교원 건물 1층에 50평 규모의 도서관을 마련하고 3월 27일 개관식을 가졌다. 도서관은 불서 3천여 권과 일반서적 2천여 권 등 모두 5천여 권의 장서를 구비했으며, 열람석 40여 석을 마련해 놓았다. 개관식에는 주지 지홍 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대전 백제불교회관 개원

조계종 포교원은 3월 28일 상운(또교원장 직대 장곡(갑사) 주지, 진오(마곡사 주지) 노옥섭회장(공무원불자회)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불교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대전 백제불교회관(운영위원장 장곡) 개관식을 개최했다.



용호복지관 장애인에 컴퓨터

부산 용호복지관(관장 혜흥)은 3월 26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중고 컴퓨터 19대를 전달했다. 혜흥 용호복지관장, 이영근 남구청장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혜흥 스님은 “장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韓民族始祖妃님 祭享日 및 三一義誠弟子 入道式에 즈음하여

천지인이 조판되면서 하늘을 천선(天仙)이라 하였고 땅을 지불(地佛)이라 하였으며 사람을 인유(人儒)라 한 것이 자연 기틀의 바탕으로 창조가 되어 이때부터 仙佛儒 삼일신앙(三一信仰)의 시원(始原)이 되었으며, 하늘의 대명을 받으나 해동 땅에 하강하신 단군시조비님께서는 천지인을 개화(開化)하시어 7·7의 천수(天數)로 북두칠성의 신앙을 물 흐르듯이 태극민족에게 유전시키고 그 신앙의 종맥(宗脈)이 반만년을 거쳐서 49금강종(金剛宗)으로 해가 뜨듯이 자손만대로 전법(傳法)된 이치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묘한 선천단군개도(先天檀君開道) 오천년과 선후중천운(先後中天運)의 36기수(氣數)와 24토운(土運)의 묘유추천(卯酉周天)으로 세운 신비한 후천미륵법립(後天彌勒法立) 용화세상의 구세주이신 미륵대불님께서는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사람의 도로써 하나의 대도(大道)인 진도(眞道)를 세우시고 대덕(大德)인 진법(眞法)을 세우시며 대행(大行)인 진교(眞教)를 정립하여 도성덕립(道成德立)으로 일체 인류를 신령통달케 하시고 선도포덕(宣道布德)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5018년 종사(宗史)의 미륵대도에서는 태극백중(太極白鍾)을 울리어 삼진귀일(三眞歸一)의 홍익진리를 찾아 겨레혼을 되살리고 민족정신으로 의식 개화하여 주체성·확립의 이정표가 되는 한민족시조비님의 제향일을 음력 3월 15일로 정립하여

대효(大孝)를 실천하고자 하오니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지성동참 하시어 충효성경의 인지본(人之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중한 천시(天時)를 기하여 본심으로 성계(聖戒)를 수지(受持)하고 정심으로 법도를 지키며 진심으로 중명에 순응하고 양심으로 중법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이 생명 다하도록 진의(眞義)와 진성(眞誠)으로 미륵대성님의 일월도덕진리(日月道德眞理)를 따라 실천수행하여 만인을 제도하는 지로자(指路者)로서의 입도식(入道式)이 봉행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 후원 : (재) 대도문화재단 (사) 미륵사상연구협의회 彌勒大道 心天不二會

하늘 뿌리 종교, 태극민족종교, 사회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 TEL (032) 832-0626 FAX (032) 831-8967 http://www.miruckdaedo.or.kr E-mail:mrdaedo@hanmail.net